



East
Asia
Institute
2005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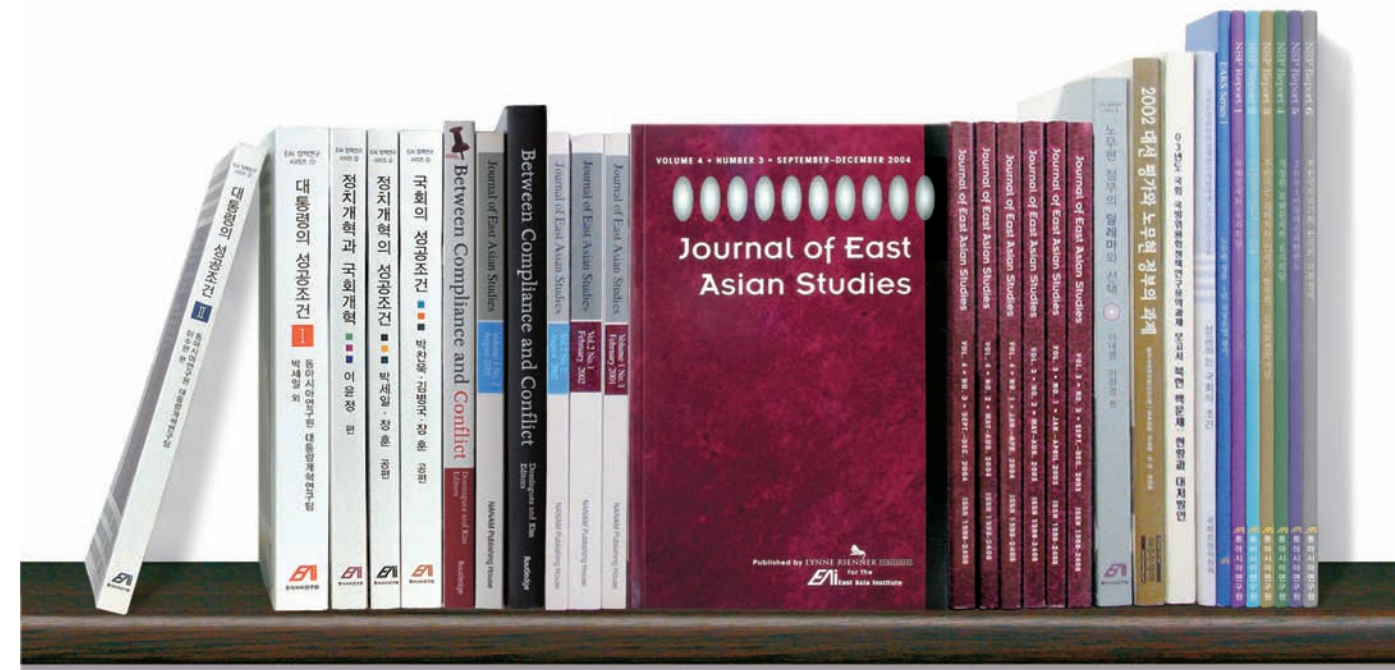
East Asia Institute

ANNUAL REPORT 2005

- 1 EAI 미션
- 2 인사말
- 4 EAI 정신
- 6 정책리서치
- 16 학술리서치
- 24 여론리서치
- 29 교육
- 30 출판
- 31 EAI 사람들
- 33 재정

EAI는 리버럴리즘의 구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시민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설계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이자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도덕적 존재라는 믿음 아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시장경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EAI의 이상은 권한과 책임을 그 주인인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개인의 창의성을 북돋워주며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삼아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리버럴리즘이다. EAI는 리버럴리즘이 지배하는 사회만이 디지털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진다고 확신한다.

EAI는 리버럴리즘이 동아시아에 확산되어 동아시아가 평화적 지역공동체로 전환되는 날을 고대한다. 리버럴리즘은 국가 사이의 공통분모보다 차이를 우선적으로 찾는 냉전적 관념으로는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고 믿는다. 군사적 힘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평화는 오히려 서로 신뢰하고 관용을 베푸는 열린 마음에서 싹트고 자라난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중·일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다. 그렇기에 EAI는 전쟁을 억지하는 안전장치로서의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중국 및 일본과 친밀한 국가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평화의 기틀을 다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전적 미래 전략을 구상한다.



선도적 싱크탱크가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처음 문을 열 때는 거창한 포부와 희망찬 계획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2002년 5월 EAI 개원식 때 저는 일반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축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창했던 포부는 시간이 갈수록 차츰 오그라들고 희망찬 계획은 갈수록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 터라 일각에서는 EAI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EAI는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안팎에 존재하던 우려의 시선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습니다. EAI는 국제적 수준의 영문저널을 발간하여 한국의 사회과학을 세계무대에 소개하는 한편 해외 학계의 현 흐름을 체계적으로 국내에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과학의 수준을 한차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학문적 기여를 위하여 국회개혁·정치개혁·대통령제 개혁 등의 거버넌스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학문 영역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제 서베이 연구분야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EAI가 국내에서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것처럼 세계가 EAI의 이름에 눈을 맞추고 EAI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날이 머지않았음을 자신합니다. 이미 해외의 여러 우수한 연구단체 홈페이지에서 EAI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정치학회 등의 학회 소식지에서 EAI의 소식을 접하는 것도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EAI 모든 식구들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EAI가 단순히 세간의 관심대상이 되는 데서 벗어나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EAI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언을 현상 분석의 준거 및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EAI에 여러분의 보다 큰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EAI의 미래를 함께 그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사장 이홍구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EAI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전파 및 실천을 자신의 미션으로 삼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EAI는 정당과 거리를 둡니다. 당파성을 가지게 되면 논리가 무너지고 감정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도 선을 긋습니다.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면 생각이 혼탁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EAI는 시민운동과도 구분됩니다. 긴 호흡으로 연구에 전념하지 않고서는 미래 한국사회에 보탬이 될 지식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행동하는 양심'보다 '생각하는 행동'이 부족합니다. EAI는 그 공백을 채우려는 작은 노력인 셈입니다.

EAI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은 EAI만의 꿈이 아닙니다. 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교수들, EAI의 아이디어를 사회 구석구석으로 전파하는 언론, 그리고 EAI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가 갖고 있는 꿈이 곧 EAI의 꿈입니다. EAI는 아이디어의 힘을 확산하는 이들의 믿음에 자기 자신을 싣고 새로운 미래의 건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EAI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객관적 지식의 생산과 전파에 매진하는 싱크탱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AI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차별을 반대하고 이해상충을 경계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실 평범한 진리 같지만 실천이 힘듭니다. EAI가 가지는 차별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데에 있습니다. EAI가 자신의 앞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 있는가는 EAI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연구를 기획하는 센터소장에서부터 테스크포스를 이끄는 위원장은 물론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등 EAI 모든 가족은 이러한 대장정의 한 순간을 책임지고 있을 뿐입니다.

원장 김병국

7대 원칙

해외 공동연구기관

- 하버드대 아시아센터(AC) 한국정치사연구
- 하버드대 유럽연구소(CES)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에서의 정치 갈등에 대한 4개국 공동연구
- 북미고르바초프재단(GFNA) 9·11 테러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연구
- 대만 장경국재단(CCKF) · 샌디 애고대학(UCSD) 동아시아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 연구
- 하버드대 웨더헤드국제학연구소(WCFIA) 신(新)팍스아메리카나 하에서의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 질서에 대한 연구
- 시카고 외교협의회(CCFR) 3개국 대외인식 공동여론조사
- 세계개발네트워크(GDN) 한국경제개혁사연구
- 글로브 스캔(GlobeScan) 23개국 국제관계 및 사회책임경영 공동여론조사

1.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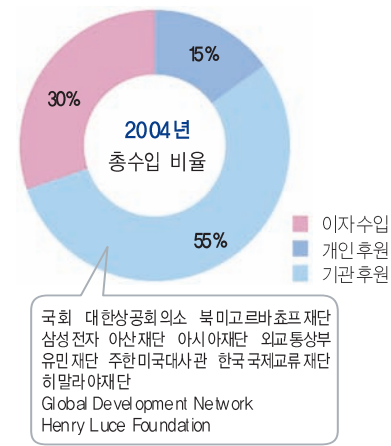
EAI는 사(私)를 배제하고 공(公)을 아끼는 마음으로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공익을 가슴속에 품고 키우려면 사사로운 이익이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안 된다. 미래의 밝은 한국을 내다보며 할 말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되려면 정부·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 등과 불가근 불가원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구축해야만 현실세계의 이해관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

2. 이해상충을 경계한다

EAI는 이해상충을 경계한다.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거나 운동을 지향하면 정치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매어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토로 삼는 것이다. EAI가 개방형 후원회를 구성하고 다수로부터 조건 없는 재정적 후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이해상충의 모순적 상황에 빠지지 않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3. 국민적 연구기관으로서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킨다

EAI는 국민이 후원자이다. '일만원이 세상을 바꾼다'는 모토 아래 각계각층의 인사가 매달 후원해주는 기금이 EAI를 이끌어간다. EAI는 재정적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감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두고 있다. 감사는 독립성을 갖고 정기적으로 재정을 감독하며 재정상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 전체에 공개된다. 후원회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후원금 내역을 밝히고 그 사용처를 자세히 보고한다.



4.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

EAI는 학술적·정책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과정 자체를 세계화시키고 있다. 영문저널 JEAS는 세계적인 석학들로 국제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미국 소재의 린라이너 출판사에서 간행된다. 학술 단행본은 기획과 예산확보에서부터 필진선정과 편집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구상하여 출판한다. 여론조사는 다양한 국가들과 수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정책포럼과 강연회 역시 외국의 우수한 기관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5. 빠르고 광범위하게 아이디어를 전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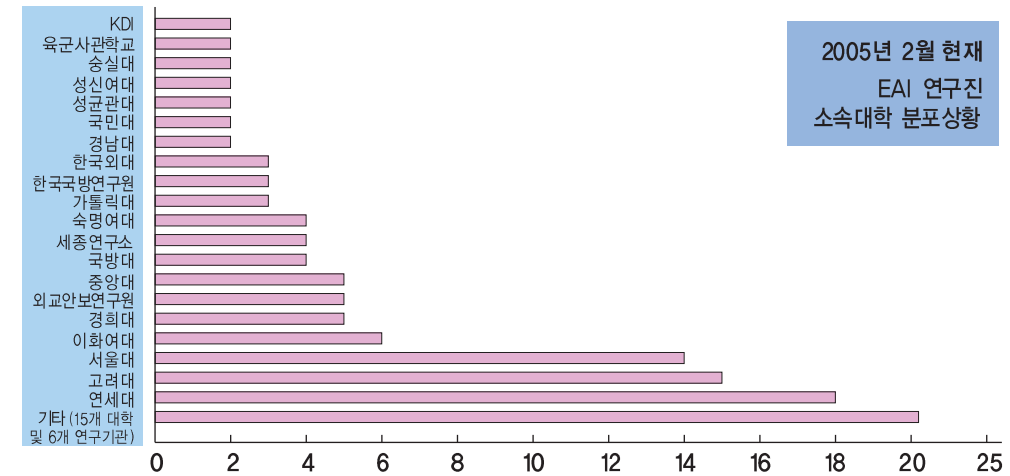
아이디어는 자신을 낳아준 생산자가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 주인이다. 아이디어의 소비자가 없다면 그 생산자는 설 땅이 없다는 의미이다. EAI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과 견해를 같이 하는 언론사와 함께 일을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언론은 아이디어의 단순한 전파자가 아니라 EAI를 후원하고 감시하며 조언하는 아이디어 생산의 동반자이다. 언론과의 공동기획은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는 정책보고서에서부터 여론조사와 정책포럼에 이르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6.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EAI는 독립기관이다. EAI의 이사회는 미래한국에 대한 철학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연구활동의 큰 방향을 잡아주고 운영과정을 감독하며 재정적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장한다. 국제자문단은 EAI가 추진하는 연구활동 전반에 대해 이론적으로 자문하고 국제연구기관과의 사이에 교량역할을 담당한다. EAI 산하의 연구센터는 이사회의 감독과 국제자문단의 조언 아래 공익에 부응하는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그 연구팀을 구성한다.

7. 학연·지연·젠더·세대를 초월하여 연구진을 구성한다

아이디어를 제대로 개발해내려면 아무런 편견 없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연구진을 찾아내야 한다. 편견이 아니라 능력으로 연구진을 구성할 때 비로소 장인정신이 싹트고 팀정신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EAI는 연고주의를 배격하고 학벌주의를 경계하며 성차별을 반대한다. 아울러 기존 학계의 세대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젊은 연구자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다. EAI 연구진의 다양한 소속대학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EAI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후원언론사

중앙일보
국가안보패널 대통령제개혁연구
여론조사 참여정부정책평가
EAI 지구넷 21

한국일보
신뢰조사 이념조사

朝鮮日報
국회개혁연구 정치개혁연구

M 매일경제
23개국 공동여론조사

SBS
한미관계 다큐멘터리

미디어다음
전문가 선정 10대 뉴스

거버넌스 연구

EAI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혁을 연구한다. 미래한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념 아래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면서 정책대안을 내놓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이다. 그러한 민주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거버넌스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다.

“참여와 효율의 조화, 개방성과 일관성의 병행, 제도와 인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을 추구한다.”
장훈 EAI 거버넌스센터 소장



거버넌스 연구

- 1. 대통령제 개혁
- 2. 정치개혁
- 3. 국회개혁
- 4. 참여정부 정책평가

참여교수

- 박세일 위원장·서울대
-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 김판석 연세대
- 모종린 EAI 소장·연세대
- 박재완 성균관대
- 염재호 고려대
- 이흥규 한국정보통신대
- 장 훈 EAI 소장·중앙대
- 정중섭 서울대
- 최병선 서울대
-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대통령제 개혁

EAI는 권력의 핵심부터 연구하기로 하고 한국의 제약적 대통령중심제를 그 첫번째 연구 과제로 삼았다. EAI 대통령제개혁연구팀은 대통령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담당해서는 안 되는 역할을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라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청와대 내부의 조직과 운영원리를 바꾸기 위한 개혁방안을 구상하였다.

연구팀은 역대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을 초청하여 증언과 조언을 듣고 개혁의 핵심 아젠다 및 그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추려내었다.

연구성과 연구팀은 2002년 대선 중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 아래 청와대 조직과 운영의 구체적 개혁방안을 발표하였고 노무현 당선자가 그 제안의 상당 부분을 참고하여 청와대 개편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2002년 12월 <대통령의 성공조건> I·II로 출간되었다.

연구기간 2002년 1월~2002년 12월

후원 고려대 평화연구소·중앙일보·아시아재단
자문 강경식(전 부총리) 강봉균(전 재정부장관) 김정원(전 주미대사) 김영수(전 민정수석) 김정림(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충남(전 정부비서관) 노재봉(전 국무총리) 박세일(전 사회복지수석) 박철언(전 정무장관) 사공일(전 재무부장관) 이종찬(전 국정원장) 이흥규(전 국무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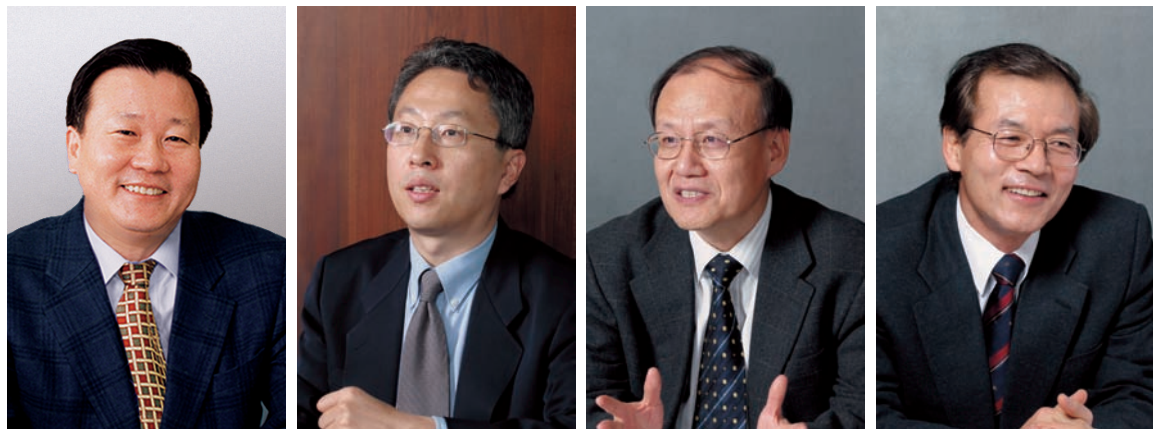
언론보도 중앙일보 9회 연재 2002년 9월 19일~10월 29일 [제왕적 대통령 이렇게 바꾸자]



대통령의 성공조건 I·II

왼쪽부터

박세일 모종린 이흥규 최병선



정치개혁

정책경쟁의 부재라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극복 하려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선거·정당·국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EAI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치개혁 아젠다를 구상하고 폭넓은 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목표 아래 정치개혁연구팀을 구성하였고, 통합능력과 정책능력 및 정치능력을 두루 갖춘 신(新)정책세력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일할 줄 아는 일꾼이 선거에서 대거 당선되어 국회를 일터로 바꾸어 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는 주장이었다. 공천과 선거, 정당조직 및 정치자금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연구팀이 내놓은 개혁안은 하나같이 신정책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정책형 정치인이 한 ‘개인’이 아니라 힘을 가진 ‘세력’이 될 때 한국 정치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이었다.

연구성과 2003년 12월 국회가 <법국민정개혁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EAI 정치개혁연구

팀의 박세일 교수를 그 위원장에 임명하였고 2004년 초 선거관련법 개정 시 EAI 연구팀의 제안 중 많은 부분이 개혁입법에 반영되었다. 연구결과는 2003년 12월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정치 개혁과 국회개혁>이라는 제목 하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연구기간 2003년 2월~2003년 12월

후원 조선일보·아시아재단·국회

자문 경운호(의원 보좌관) 김문수(16대 국회의원) 남재희(전 노동부 장관) 양상훈(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강래(16대 국회의원) 임좌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순형(16대 국회의원) 허화평(현대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보도 조선일보 기획시리즈 6회 2003년 11월 10일~17일 [정치를 바꾸자]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왼쪽부터

김용호 박철희 임성학



거버넌스 연구



“과거를 부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래지향적 발전의 구체적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를 어떠한 내용으로 채우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현진 EAI 이사

참여교수

- 박찬욱 위원장 · 서울대
- 김병국 간사 · EAI 원장 · 고려대
- 강원택 송실대
- 김민전 경희대
- 김의영 경희대
- 박세일 서울대
- 박재완 성균관대
- 박재창 숙명여대
- 이연호 연세대
- 임성호 경희대
- 장 훈 EAI 소장 · 중앙대
- 정종섭 서울대

국회개혁

한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개혁은 국회가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다. EAI 국회개혁연구팀은 국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여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야당과 협력적 경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 힘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펼치려는 국회의원 개인의 윤리의식에서부터 태동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려는 정책 의식을 통해 자라난다. 셋째,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그 조직과 운영이 예산 심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각종 청문회가 활성화되는 위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싱크탱크를 국회 내에 구축하는 것은 개혁국회의 선결조건이다.

연구성과 연구결과는 2004년 5월 <국회의 성공조건>으로 출간되었다.

연구기간 2003년 3월~2004년 5월

후원 조선일보 · 아시아재단 · 국회

자문 김정국(전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박관용(국회의장) Jeff Holland(미국 의회예산처 예산분석국장) 정호영(16대 국회도서관장) 추병직(전 건설교통부 차관) 이해찬(16대 국회의원)

언론보도 조선일보 기획시리즈 6회 2004년 4월 21일 ~ 5월 8일 [국회가 중심이다]



국회의 성공조건

참여정부 정책평가

EAI는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국정운영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AI는 참여정부정책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치·외교안보·행정·경제·사회·언론·교육 등의 영역에서 개혁과제를 선정하였고, 2003년 1월부터 1년 동안 각각의 개혁과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한편 EAI는 정부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주관적이 될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부에 여론조사팀을 설치하고 2003년 1월부터 2월까지 전문가 설문조사와 일반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정부부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252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

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여론조사는 일반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팀은 전문가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치우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시민사회의 열망을 고루 정책평가에 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 전문가 설문조사와 일반여론조사의 결과는 2004년 3월 연구원의 보고서 시리즈인 EARS를 통해 발표되었다. 참여정부정책평가위원회는 2007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존속되며 2005년 지방선거 때 제2차 평가작업을 진행한 다음 영문으로 단행본을 출판할 예정이다.

연구기간 2003년 1월 ~ 2007년

후원 중앙일보

언론보도 중앙일보 기획시리즈 7회 2004년 2월 19일~ 26일 [노대통령 1년 국정평가]

참여교수

- 임현진 위원장 · EAI 이사 · 서울대
- 김 균 고려대
-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 김용호 인하대
- 박재완 성균관대
- 송호근 서울대
- 윤영철 연세대
- 이내영 EAI 소장 · 고려대
- 이중수 한성대
- 이중화 고려대
- 이주호 KDI
- 전주성 이화여대
- 정진영 경희대
- 하영선 EAI 이사 ·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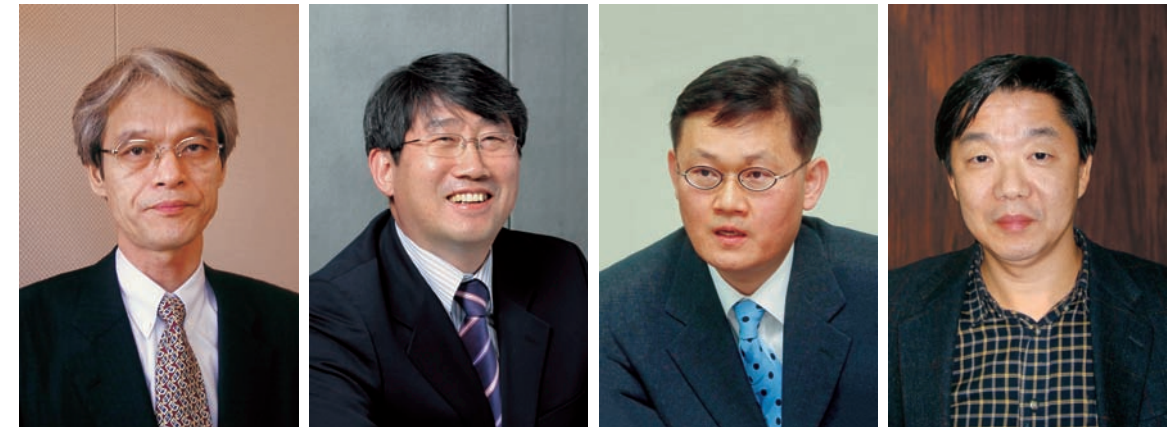
왼쪽부터

강원택 김민전 김의영 박찬욱



왼쪽부터

송호근 윤영철 이중화 전주성



외교안보 연구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정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교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이념화됨으로써 외교가 전략성과 순발력을 잃고 국민적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EAI는 한국의 외교안보가 '진보 대 보수'라는 낡은 냉전시대의 담론 안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외교의 담론들을 창출하고자 한다.

왼쪽위부터

- 김남이 김은미 김일영 김재철 김창수
- 손 열 신성호
- 이상현 이재열 이태환 이호철 전재성
- 정진영 차두현 최 강 최진우 한용섭

EAI 지구넷 21 연사

Marshall M. Bouton
시카고 외교협회 회장
일시: 2003년 3월 21일
주제: 9·11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 국내여론의 변화

John R. Bolton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일시: 2003년 7월 31일
주제: 핵 확산 방지 정책과 북한

Christopher R. Hill
주한 미국대사
일시: 2005년 1월 26일
주제: 부시 2기의 대북 정책

Richard Lawless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일시: 2005년 2월 4일
주제: 미국의 군사 변화와 주한 미군

Robert Gallucci
전(前)미국 북핵대사
일시: 2005년 3월 31일
주제: 북핵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EAI 지구넷 21

EAI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2004년 10월 22일 전문가 모임인 EAI 지구넷 21을 공식적으로 발족시켰다. EAI 지구넷 21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전문가적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凡)정파적이고 범(凡)이념적으로 회원을 구성하였다. EAI 지구넷 21은 외교안보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광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현직 고위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을 초빙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후원 중앙일보

- 연론보도 동아일보 2004년 10월 23일 [냉전시대 논리 뛰어넘자. 지구넷 발족]
- 중앙일보 2004년 11월 26일 [미군 재배치와 한국의 신안보전략]
- 중앙일보 2005년 1월 27일 [부시 2기 대북 외교 정책]
- 서울신문 2005년 4월 1일 [북핵 4~5년 더 끌면 전세계 불안]

"미국의 전문가 조직이 정부가 중요 정책을 입안할 때 사전에 여론을 실험하는 대상이 되듯이 'EAI 지구넷 21'도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건강한 비판과 검증 및 자문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하영선 EAI 이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 EAI 지구넷 21

EAI 지구넷 21 회원

- | | | | | | | |
|------------|-------------|----------|-----------|-----------|-----------|----------|
| 하영선 회장·서울대 | 김용호 인하대 | 남성욱 고려대 | 신옥희 서울대 | 이시영 중앙대 | 전재성 서울대 | 최 훈 중앙일보 |
| 강경희 조선일보 | 김우상 연세대 | 류길재 경남대 | 오경택 전남대 | 이신화 고려대 | 전주성 이화여대 | 하태원 동아일보 |
| 강원택 송실대 | 김은기 고려대 | 마상운 가톨릭대 | 오대영 중앙일보 | 이연호 연세대 | 전진호 광운대 | 한용섭 국방대 |
| 김 균 고려대 | 김은미 이화여대 | 모종린 연세대 | 오영환 중앙일보 | 이옥연 국방대 | 정용화 연세대 | 한태준 중앙대 |
| 김기정 연세대 | 김의영 경희대 | 박길성 고려대 | 우승지 외안연 | 이원덕 국민대 | 정중섭 서울대 | 현인택 고려대 |
| 김명섭 연세대 | 김일영 성균관대 | 박두식 조선일보 | 유호열 고려대 | 이재열 서울대 | 정진영 경희대 | 홍규덕 숙명여대 |
| 김병국 고려대 | 김재철 가톨릭대 | 박명림 연세대 | 윤영철 연세대 | 이정훈 연세대 | 차두현 국방연구원 | 홍성걸 국민대 |
| 김상현 서울방송 | 김창수 국방연구원 | 박영준 국방대 | 이 근 서울대 | 이철호 부산대 | 최 강 국방연구원 | 황진환 육사 |
| 김선희 고려대 | 김태현 중앙대 | 박찬욱 서울대 | 이내영 고려대 | 이태환 세종연구소 | 최대석 동국대 | |
| 김성한 외안연 |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 박철희 서울대 | 이동휘 외안연 | 이호철 인천대 | 최명길 문화방송 | |
| 김영호 국방대 | 김형국 숙명여대 | 서병훈 송실대 | 이민룡 육사 | 임원혁 국방연구원 | 최영중 가톨릭대 | |
| 김영호 성신여대 | 남궁곤 이화여대 | 손 열 중앙대 | 이상현 세종연구소 | 장 훈 중앙대 | 최은봉 이화여대 | |
| 김용직 성신여대 | 남궁영 한국외대 | 신성호 서울대 | 이숙중 세종연구소 | 전상인 한림대 | 최진우 한양대 | |



거버넌스 연구



“과거를 부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래지향적 발전의 구체적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를 어떠한 내용으로 채우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현진 EAI 이사

참여교수

- 박찬욱 위원장 · 서울대
- 김병국 간사 · EAI 원장 · 고려대
- 강원택 송실대
- 김민전 경희대
- 김의영 경희대
- 박세일 서울대
- 박재완 성균관대
- 박재창 숙명여대
- 이연호 연세대
- 임성호 경희대
- 장훈 EAI 소장 · 중앙대
- 정종섭 서울대

국회개혁

한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개혁은 국회가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다. EAI 국회개혁연구팀은 국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여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야당과 협력적 경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 힘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펼치려는 국회의원 개인의 윤리의식에서부터 태동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려는 정책의식을 통해 자라난다. 셋째,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그 조직과 운영이 예산 심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각종 청문회가 활성화되는 위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싱크탱크를 국회 내에 구축하는 것은 개혁국회의 선결조건이다.

연구성과 연구결과는 2004년 5월 <국회의 성공조건>으로 출간되었다.

연구기간 2003년 3월~2004년 5월

후원 조선일보 · 아시아재단 · 국회

자문 김정국(전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박관용(국회의장) Jeff Holland(미국 의회예산처 예산분석국장) 정호영(16대 국회도서관장) 추병직(전 건설교통부 차관) 이해찬(16대 국회의원)

언론보도 조선일보 기획시리즈 6회 2004년 4월 21일 ~ 5월 8일 [국회가 중심이다]



국회의 성공조건

참여정부 정책평가

EAI는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국정운영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AI는 참여정부정책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치·외교안보·행정·경제·사회·언론·교육 등의 영역에서 개혁과제를 선정하였고, 2003년 1월부터 1년 동안 각각의 개혁과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한편 EAI는 정부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주관적이 될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부에 여론조사팀을 설치하고 2003년 1월부터 2월까지 전문가 설문조사와 일반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정부부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252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

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여론조사는 일반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팀은 전문가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치우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시민사회의 열망을 고루 정책평가에 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 전문가 설문조사와 일반여론조사의 결과는 2004년 3월 연구원의 보고서 시리즈인 EARS를 통해 발표되었다. 참여정부정책평가위원회는 2007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존속되며 2005년 지방선거 때 제2차 평가작업을 진행한 다음 영문으로 단행본을 출판할 예정이다.

연구기간 2003년 1월 ~ 2007년

후원 중앙일보

언론보도 중앙일보 기획시리즈 7회 2004년 2월 19일~26일 [노대통령 1년 국정평가]

참여교수

- 임현진 위원장 · EAI 이사 · 서울대
- 김균 고려대
-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 김용호 인하대
- 박재완 성균관대
- 송호근 서울대
- 윤영철 연세대
- 이내영 EAI 소장 · 고려대
- 이중수 한성대
- 이중화 고려대
- 이주호 KDI
- 전주성 이화여대
- 정진영 경희대
- 하영선 EAI 이사 ·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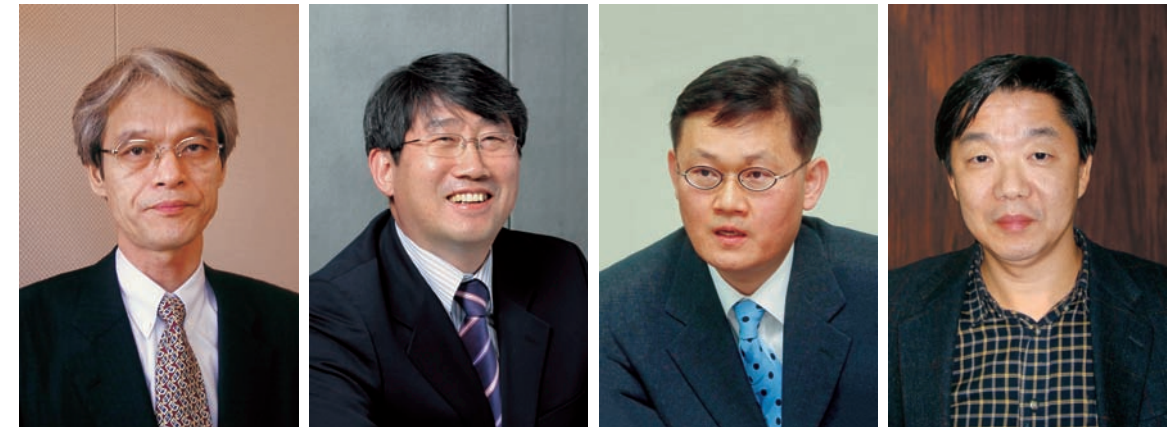
왼쪽부터

강원택 김민전 김의영 박찬욱



왼쪽부터

송호근 윤영철 이중화 전주성



외교안보 연구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정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교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이념화됨으로써 외교가 전략성과 순발력을 잃고 국민적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EAI는 한국의 외교안보가 '진보 대 보수'라는 낡은 냉전시대의 담론 안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외교의 담론들을 창출하고자 한다.

왼쪽위부터

- 김남이 김은미 김일영 김재철 김창수
- 손 열 신성호
- 이상현 이재열 이태환 이호철 전재성
- 정진영 차두현 최 강 최진우 한용섭

EAI 지구넷 21 연사

Marshall M. Bouton
시카고 외교협회 회장
일시: 2003년 3월 21일
주제: 9·11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 국내여론의 변화

John R. Bolton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일시: 2003년 7월 31일
주제: 핵 확산 방지 정책과 북한

Christopher R. Hill
주한 미국대사
일시: 2005년 1월 26일
주제: 부시 2기의 대북 정책

Richard Lawless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일시: 2005년 2월 4일
주제: 미국의 군사 변화와 주한 미군

Robert Gallucci
전(前)미국 북핵대사
일시: 2005년 3월 31일
주제: 북핵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EAI 지구넷 21

EAI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2004년 10월 22일 전문가 모임인 EAI 지구넷 21을 공식적으로 발족시켰다. EAI 지구넷 21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전문가적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凡)정파적이고 범(凡)이념적으로 회원을 구성하였다. EAI 지구넷 21은 외교안보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광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현직 고위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을 초빙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후원 중앙일보

- 언론보도** 동아일보 2004년 10월 23일 [냉전시대 논리 뛰어넘자. 지구넷 발족]
- 중앙일보 2004년 11월 26일 [미군 재배치와 한국의 신안보전략]
- 중앙일보 2005년 1월 27일 [부시 2기 대북 외교 정책]
- 서울신문 2005년 4월 1일 [북핵 4~5년 더 끌면 전세계 불안]

"미국의 전문가 조직이 정부가 중요 정책을 입안할 때 사전에 여론을 실험하는 대상이 되듯이 'EAI 지구넷 21'도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건강한 비판과 검증 및 자문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하영선 EAI 이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 EAI 지구넷 21

EAI 지구넷 21 회원

- | | | | | | | |
|------------|-------------|----------|-----------|-----------|-----------|----------|
| 하영선 회장·서울대 | 김용호 인하대 | 남성욱 고려대 | 신옥희 서울대 | 이시영 중앙대 | 전재성 서울대 | 최 훈 중앙일보 |
| 강경희 조선일보 | 김우상 연세대 | 류길재 경남대 | 오경택 전남대 | 이신화 고려대 | 전주성 이화여대 | 하태원 동아일보 |
| 강원택 송실대 | 김은기 고려대 | 마상운 가톨릭대 | 오대영 중앙일보 | 이연호 연세대 | 전진호 광운대 | 한용섭 국방대 |
| 김 균 고려대 | 김은미 이화여대 | 모종린 연세대 | 오영환 중앙일보 | 이옥연 국방대 | 정용화 연세대 | 한태준 중앙대 |
| 김기정 연세대 | 김의영 경희대 | 박길성 고려대 | 우승지 외안연 | 이원덕 국민대 | 정중섭 서울대 | 현인택 고려대 |
| 김명섭 연세대 | 김일영 성균관대 | 박두식 조선일보 | 유호열 고려대 | 이재열 서울대 | 정진영 경희대 | 홍규덕 숙명여대 |
| 김병국 고려대 | 김재철 가톨릭대 | 박명림 연세대 | 윤영철 연세대 | 이정훈 연세대 | 차두현 국방연구원 | 홍성걸 국민대 |
| 김상현 서울방송 | 김창수 국방연구원 | 박영준 국방대 | 이 근 서울대 | 이철호 부산대 | 최 강 국방연구원 | 황진환 육사 |
| 김선혁 고려대 | 김태현 중앙대 | 박찬욱 서울대 | 이내영 고려대 | 이태환 세종연구소 | 최대석 동국대 | |
| 김성한 외안연 |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 박철희 서울대 | 이동휘 외안연 | 이호철 인천대 | 최명길 문화방송 | |
| 김영호 국방대 | 김형국 숙명여대 | 서병훈 송실대 | 이민룡 육사 | 임원혁 국방연구원 | 최영중 가톨릭대 | |
| 김영호 성신여대 | 남궁곤 이화여대 | 손 열 중앙대 | 이상현 세종연구소 | 장 훈 중앙대 | 최은봉 이화여대 | |
| 김용직 성신여대 | 남궁영 한국외대 | 신성호 서울대 | 이숙중 세종연구소 | 전상인 한림대 | 최진우 한양대 | |



외교안보 연구

왼쪽위부터

김부겸 김영춘 김형주 노회찬 박경산
박형준 송영길 송영선 원희룡 이인영
정문헌 조승수

Bradner Chung John Kane Kim
Martin Minton Overby Oberlin Washington



Dialogue 21

17대 총선 결과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국회 내에 외교채널이 무너지고 미국통(通)·중국통(通)·일본통(通) 등의 전문가가 거의 없게 되었고 한 상황이 되었다. EAI는 대한민국 국회가 새로운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미 Dialogue 21과 한중 Dialogue 21을 발족시켰다. Dialogue 21은 국회가 주변국가의 정부 인사와 다각적으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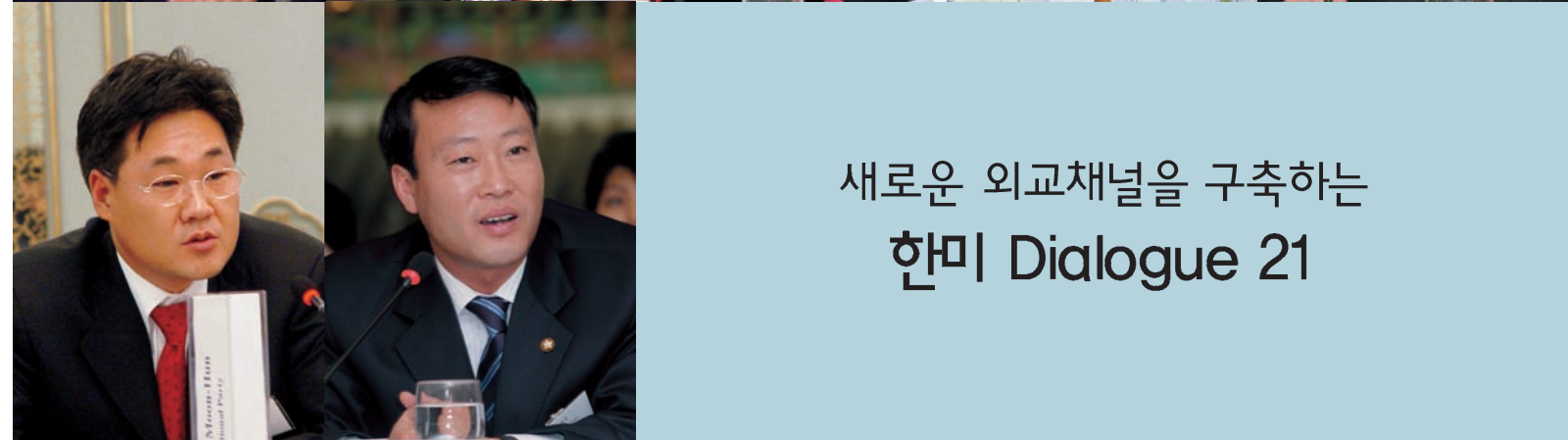
한미 Dialogue 21

한미 Dialogue 21에서는 한국의 17대 초·재선 국회의원들이 주한 미대사관·주한 미군·주한 미상공회의소의 고위 인사들과 만나 국제적 이슈와 한미간 외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한다. 한미 Dialogue 21은 2004년 6월 30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첫 회의를 열었으며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후원 대한민국 국회·주한 미국대사관

한중 Dialogue 21

한중 Dialogue 21에서는 한국의 17대 국회의원들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위원회 위원 및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국제적 이슈와 한중간 외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한다. EAI는 북경대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한중 Dialogue 21을 주최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북경에서 조인식을 가졌으며 1년에 2번 양국을 교환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한미 Dialogue 21

한미 Dialogue 21 참여인사

국회의원

김원기 국회의장
김부겸 열린우리당
김영춘 열린우리당
김충환 한나라당
김형주 열린우리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박경산 국회의장 정책특보
박형준 한나라당
송영길 열린우리당
송영선 한나라당
원희룡 한나라당
이승희 새천년민주당

EAI

이홍구 이사장·전 국무총리
김경원 이사·전 주미대사
김병국 원장·고려대
김태현 소장·중앙대
이근 소장·서울대
이내영 소장·고려대
임현진 이사·서울대
장훈 소장·중앙대
정한울 선임연구원
하영선 이사·서울대

미국측

Stephen Bradner
주한미군사령관 특별보좌관
Kyung-A Chung
공보과 선임위원
Mary Ann Cummings
주한미군 대변인
Carmine D'Aloisio
미대사관 상무참사관
Charles D. Ferguson
미국 외교협회 위원
Thomas Hubbard
주한 미대사
Eric John
미대사관 정무참사관
Thomas P. Kane
주한미공군 소장
Dae B. Kim
미대사관 부문장관
Yuri Kim
미대사관 국내 정치정부담당관
Dale G. Kreishner
공보과 일등서기관
Joanne M. Martin
미대사관 문정관
Mark C. Minton
미대사관 부대사
Tami Overby
주한 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William Oberlin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
Don Q. Washington
미대사관 공보참사관



외교안보연구

“외교에 국가존망이 걸린 한국에 있어 정착 필요한 것은 정치 9단이 아니라 외교 9단이다. 한국은 국가이익에 두 발을 딛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아이디어 전파

외교안보 연구

- 1. EAI 지구넷 21
- 2. Dialogue 21
- 3. EAI-SBS 공동기획 다큐멘터리 「한국과 미국」
- 4. 국가안보패널

다큐멘터리 공동기획위원회

- 하영선 EAI 이사·서울대
-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김태현 EAI 소장·중앙대
- 최강 국방연구원
- 진송민 서울방송 기자
- 조성원 서울방송 기자

국가안보패널 참여교수

- 하영선 위원장·EAI 이사·서울대
- 전재성 간사·서울대
-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김영호 성신여대
- 김태현 EAI 소장·중앙대
- 박철희 서울대
- 신성호 서울대
- 이상현 세종연구소
- 이태환 세종연구소
- 장훈 EAI 소장·중앙대
- 정진영 경희대
-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 한용섭 국방대학원

다큐멘터리 「한국과 미국」

EAI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파병 등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고 한미동맹의 의미와 그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SBS와 공동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EAI가 정책리서치와 학술리서치를 넘어 국민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부 「부시 27기의 주한미군」 2004년 11월 9일 방영
2부 「부시 27기의 한미동맹」 2004년 11월 16일 방영



국가안보패널

EAI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안보패널을 구성하였다. 국가안보패널은 매달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정책제안서를 시리즈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EAI는 매달 중앙일보 지면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NSP Report를 소개하는 동시에 1,600여명에 이르는 학계·언론계·정계·관계의 전문가들에게 NSP Report를 발송함으로써 해당 현안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04년 6월부터

후원 대한상공회의소·중앙일보

언론보도 매월 1회 중앙일보 특집기사 연재

NSP Report 시리즈

- 제1호: 북핵문제와 6자회담
- 제2호: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 제3호: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 전략 개념
- 제4호: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 제5호: 2004 미국 대선과 한반도
- 제6호: 북한 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 제7호: 일본의 신방위 대강과 한국의 진로
- 제8호: 중국의 대외 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NSP Report 시리즈

언론사 후원

EAI는 정책개발에 나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론을 동반자로 삼는다. 출범 초기 중앙일간지에 제한되었던 협력관계가 이제는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까지 두루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주재 외신기자에게도 EAI 정책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EAI가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싱크 탱크가 되려면 EAI가 생산해내는 아이디어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연구

역사를 모르고서는 사회과학이론을 개발할 수도 정책분석에 나설 수도 없다. 과거에 무지한 채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는 더더욱 없다.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은 현재의 당리당락에 따라 과거를 해석하는 역사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역사학은 맥락에 충실하지만 역사주의는 당파성을 추구한다. EAI는 역사학의 관점에 서서 동아시아 개발국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 정치경제의 근현대사를 시리즈로 편찬한다.



“현재의 눈으로는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역사학의 기본이다. 오직 역사적 상상력으로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되살려야만 과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김병국 EAI 원장

위부터
Domínguez
이정훈
함재봉

한국정치사 연구 : 박정희 시대

오늘날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명과 암은 다같이 박정희 시대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당리당락을 좇는 정당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EAI는 학자적 자세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역사의 맥락에 충실하면서 박정희 시대를 연구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1998년 당시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소장이었던 Ezra Vogel 교수와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연구를 한국 교수들의 손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필자들은 대부분 국내 학자들로 충원되었다. 그러나 비교사적 관점에서 박정희 시대를 바라본다는 취지로 4명의 외국교수도 필진으로 동참하였고, 별도로 9명의 외국학자들로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권과 각 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논평을 받았다. 국내학자 29명과 해외학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지난 8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곧 3권의 영문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연구기간 1998년 1월~2006년 1월
주최 EAI·하버드대 아시아센터(AC)

박정희 프로젝트 연혁

1997년 8월	Ezra Vogel 교수(하버드대)와 김병국 교수(고려대)가 박정희 시대를 분석하는 세 권의 영문 단행본을 시리즈 형태로 미국에서 출판하는 데 합의하다.
1998년 1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1명의 후원자로 재정위원회를 조직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위원장에 취임하다.
1998년 6월	한국정치사는 한국인의 손으로 집필한다는 원칙 아래 34명의 필자를 국내 대학에서 선임하다.
1999년 9월	개별 논문에 대한 역사학적 논평과 이론적 비평을 통하여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국 유수 대학의 동아시아 학자와 한국학 전문가 13명으로 국제자문교수단을 구성하다.
2000년 8월	전체 필진과 국제자문교수가 참여하는 제1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다.
2000년 9월	국제자문교수 가운데 4명이 박정희 정권하의 한국을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 사례와 비교하는 논문을 집필하는 필자로 선정되다.
2002년 1월	함재봉 교수(연세대)와 이정훈 교수(연세대)가 새로이 공동 편집자로 선임되다.
2002년 7월	EAI 출범과 더불어 Ezra Vogel 교수와 김병국 교수가 연구사업을 하버드대학 아시아센터와 EAI의 공동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다.
2002년 9월	보스턴에서 개최된 미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두 개의 패널을 구성하여 국내 필진 4명과 국외 필진 3명의 논문을 발표하다.
2005년 현재	2005년 중반까지 제1권과 제2권을 미국 소재 출판사에 제출하여 심사과정을 밟는다는 목표로 최종 수정작업에 박차를 가하다.

국제학술회의 : 박정희 시대

The Park Chung Hee Era: Modernization
〈박정희 시대〉 연구에 참여하는 국내외 필자 32명과 국제자문위원 9명은 2000년 8월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1차 원고에 대한 심층적 토론을 벌였다

The Developmental State Revisited: Political Regime, Industry Characteristics, Policy Networks and Leadership
〈박정희 시대〉 집필진 중 김병국, Domínguez,

출판
The Park Era: Formation and Consolidation Volume I, co-edited by Byung-Kook Kim, Ezra F. Vogel, and Chaibong Hahm
The Park Era: Coalition Building Volume II, co-edited by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The Park Era: The Demise and Foreign Relations Volume III, co-edited by Byung-Kook Kim, Ezra F. Vogel, and Jung Hoon Lee

Hutchcroft, Noble 교수 등은 미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남미·필리핀·대만 등 외국사례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The Rebirth of Modern Korea: The Park Era
〈박정희 시대〉 집필진 중 장훈, 김은미, 김병국, 김주홍 교수 등은 미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박정희 시대의 주역인 공화당·재벌·관료·군부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필진

김병국	고려대	유석진	서강대
김수진	이화여대	윤상철	성균관대
김영호	성신여대	이내영	고려대
김용직	성신여대	이민룡	육군사관학교
김은미	이화여대	이영조	경희대
김일영	성균관대	이정훈	연세대
김주홍	울산대	이종석	세종연구소
김태현	중앙대	임혁백	고려대
류상영	연세대	임현진	서울대
문정인	연세대	장훈	중앙대
박길성	고려대	한승미	연세대
박명림	연세대	한용섭	국방대
백창재	서울대	함재봉	연세대
송호근	서울대	홍성걸	국민대
신옥희	서울대		

국제 필진

Ezra Vogel	Harvard University
Jorge I. Domínguez	Harvard University
Paul Hutchcrof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Greg Noble	Tokyo University

자문 및 논평

Charles Armstrong	Columbia University
Ed Baker	Harvard University
Victor D. Cha	Georgetown University
Carter Eckert	Harvard University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ae-Jin Lee	Claremont McKenna College
David McCann	Harvard University
David Steinberg	Georgetown University
Meredith Woo-Cumings	Northwestern University

동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EAI는 이러한 사회과학적 진리탐구의 전통에 기반해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동아시아 지역학을 탐구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궁금하면 대만과 비교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궁금하면 라틴아메리카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라야 우물 안 개구리 식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AI는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을 연구하고 세계인의 눈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바라본다



동아시아 지역의 3중 변화 : 평화·발전·지역화

동아시아 지역은 지금 권력 이동의 한복판에 서있다. 권력의 중심이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한으로 이동하였고 양안(兩岸) 관계에서는 중국으로 기운지 오래이다. 게다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패권국가 미국은 이제 기존의 지역 질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니라 반테러 전쟁과 경제 개방 정책을 통해 국제정치의 판을 새로이 짜는 '수정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EAI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한 구성 단위인 분단국가 내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중의 권력이동을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연구한다는 목적 아래 북미고르바초프 재단과 함께 2003년 9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결과는 2005년 영문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일시 2003년 9월

장소 서울 신라호텔

주최 EAI·북미 고르바초프재단(GFNA)

연구결과 영문 단행본 *Redesigning East Asia's Strategic Map* 출판 예정

사회

Michael H. Armacost
Stanford University
전(前) 미국무부 차관

Kim Campbell
Harvard University
전(前) 캐나다 수상

Kyung-Won Kim
EAI 이사
전(前) 주미대사

Hong-Koo Lee
EAI 이사장
전(前) 국무총리

George J. Matthews
Gorbachev Foundation of North America

Thomas A. Jones
Gorbachev Foundation of North America

참여전문가

Victor D. Cha
Georgetown University

Yun-han Chu
Academia Sinica

Paul Evan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Gang Fan
The 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ugene E. Habiger
예비역 대장
전(前)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Nobuhiro Hiwatari
University of Tokyo

David C. Kang
Dartmouth College

Byung-Kook Kim
Korea University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Chung Min Lee
Yonsei University

Alexander Lukin
The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Daniel I. Okimoto
Stanford University

Aihwa O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inxin Pei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usan J. Pharr
Harvard University

Yoshinobu Yamamoto
University of Tokyo

위부터

김경원 Armacost Campbell Fang Pharr

시민사회 연구

민주화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과 그 성격을 바꾸어 놓고,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방식은 거꾸로 신생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민주주의의 질을 좌우한다. EAI는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한 목적 아래 민주화의 돌파구가 마련된 시점으로부터 공고화가 결실을 맺는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형태의 시민사회 집단행동에 관한 신문기사 및 주간지 기사를 분석하는 연구를 대만·폴란드·헝가리 연구팀과 공동으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위가 범람하는 저항적 시민사회의 사례(폴란드·한국)와 시위가 많지 않은 안정적 사례(대만·헝가리)를 동아시아 문화권과 동구권과 문화권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연구한다. EAI는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뱅크를 구축함으로써 정치학과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기간 2003년 9월~2005년 12월

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개혁사 연구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적' 발전모델에 대한 재조명이 전(全)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AI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에서 단행된 경제개혁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다같이 짚어봄으로써 아시아적 모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단행본 출판을 통해 발표된다.

연구기간 2003년 3월~2005년 4월

후원 세계은행 산하 세계개발 네트워크(GDN)

시민사회연구 참여교수

한국팀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김선혁 고려대

대만팀

Yun-han Chu
Academia Sinica

Chin-en Wu
Academia Sinica

폴란드팀

Grzegorz Ekiert
Harvard University

Jan Kubik
Rutgers University

헝가리팀

Bela Greskovits
Central European University

Jason Wittenber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한국경제개혁사 참여교수

이근 위원장·EAI 소장·서울대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이재열 서울대
이정훈 하와이대

왼쪽부터 김선혁 Ekiert Kubik 이근



동아시아 지역연구



「개발국가 이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 학술회의

동아시아지역연구

1. 동아시아 지역의 3중 변화 : 평화·발전·지역화
2. 시민사회 연구
3. 한국경제개혁사 연구
4. 개발국가 이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
5. 신(新)팍스아메리카나
6. 동아시아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

개발국가 이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

1997년 금융위기로 개발국가의 시대는 그 막을 내렸다. EAI는 개발국가가 해체되면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를 주제로 삼아 2004년 3월 북미지역의 대표적 동아시아 전공 소장 정치학자를 초빙하여 ‘개발국가 이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 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학술회의에는 EAI가 간행하는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의 주간 및 부주간이 한국정치학계의

중진학자 8인과 함께 논평자로 초청되어 학술적 견해를 주고받았다. 회의에서 발표된 6편의 논문은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제4권 3호에 특집으로 게재되었다.

일시 2004년 3월 27일

장소 서울 힐튼호텔

연구결과 JEAS 제4권 3호 Special Issue로 출판

발표

Robert Pekkanen
Middlebury College

Ito Peng
University of Toronto

Victor Shih
Northwestern University

Eric Thune
Princeton University

Joseph Wong
University of Toronto

토론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Xiabo Lu
Columbia University

Andrew MacInty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Yoshihide Soeya
Keio University

김병국 고려대

김의영 경희대

김은기 고려대

유석진 서강대

이내영 고려대

이연호 연세대

임혜란 서울대

장 훈 중앙대

왼쪽부터

Peng Thune Wong Shih



신(新)팍스아메리카나

미국이 구축하고 누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국제정치학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성격은 주로 패권국가인 미국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EAI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성격과 그 운영원리 및 내부 질서를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살핀다는 목적 아래 하버드대 WCFIA와 공동으로 2003년 2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다양한 ‘얼굴’을 그려내기 위하여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분쟁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가(남북한과 쿠바)는 물론 미국에 저항해 본 경험이 있는 지역 열강(중국·일본·브라질·멕시코)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연구결과는 2005년 Routledge 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일시 2003년 2월

장소 Boston

주최 EAI·WCFIA, Harvard

연구결과 Jorge I. Domínguez and Byung-Kook Kim, eds.,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New York: Routledge, 2005) 출판

동아시아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

EAI는 서양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Hall과 Soskice 공편(共編) *Varieties of Capitalism*을 모델로 삼아 동아시아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을 분석한다는 목표 아래 2005년 9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학술회의는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추진되며 연구결과 중 일부는 Yves Tiberghien 교수(Harvard Scholar 겸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공동 서평 주간)의 주도로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특집호에 게재된다. 나머지 논문은 *Varieties of Capitalism in East Asia*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단행본 형태로 출판될 예정이다.

일시 2005년 9월

장소 고려대학교

주최 EAI·고려대 동아시아교육연구단·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연구결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특별호 게재 및 영문 단행본 *Varieties of Capitalism in East Asia* 출판



“Most scholars specialize in one region, which is why Domínguez and Kim’s comparison is so valuable. Their perceptive analysis finds U.S. relations with both regions poised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An illuminating case of comparative foreign policy.”
-Robert A. Pastor,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Affairs, American University

영문 저널 JEAS



왼쪽부터 Haggard Lu MacIntyre

왼쪽부터 Soeya 김병국 김은기 Tiberghien 김하정

동아시아 연구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차원에서 여러 국가를 사례로 삼아 사회과학적 명제를 끌어내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로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지 중국을 연구하는 '중국학'이 있고 한국을 공부하는 '한국학'이 있고 일본을 이해하려는 '일본학'이 있을 뿐이다. 한국가를 넘어서는 거대한 지역을 연구단위로 삼아 특수성과 보편성의 역사발전 원리를 다같이 훑어보는 중남미 지역학이나 구라파 지역학과 달리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하나의 국가 사례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다. EAI는 동아시아 연구를 국가라는 소단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역학으로 키운다는 비전 아래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JEAS)를 매년 3회 간행하고 있다.

EAI는 JEAS를 글로벌 기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취지 아래 세계적 학술지인 *World Politics*를 벤치마킹하고 그에 따라 조직과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중국·일본·미국·호주의 대표적 정치학자 6인이 주간과 부주간을 맡고 34인의 세계적 학자가 국제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2인의 중견학자가 서평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사는 미국 소재의 Lynne Rienner Publishers이고 저널의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운영주간은 EAI의 김하정 연구기획실장이다. JEAS는 2005년 1월 현재 제5권 1호를 출판한 상태이며 2007년에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일반 학술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한국에는 SSCI에 등재된 일반 학술지가 없다.

- 2000년 3월** 고려대 동아시아연구교육단이 영문저널 출간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다.
- 2000년 6월** 김병국(고려대)·Yun-han Chu (Academia Sinica)·Ryosei Kokubun (Keio University) 교수 3인이 일본 동경에서 만나 JEAS를 매년 2회 출간하기로 하고 공동주간에 취임하는 동시에 남출판사를 JEAS 출판사로 선정하다. 이신화 교수(고려대)가 운영주간으로 취임하고 김은기 교수(고려대)가 서평주간으로 위촉되다. 24명의 정치학자와 국제관계학자를 한국·중국·일본·미국·말레이시아·태국에서 선발하여 국제편집위원회를 구성하다.
- 2001년 2월** 남출판사에서 JEAS 제1권 1호를 출판하다.
- 2002년 7월** 지적 재산권이 고려대 동아시아연구교육단에서 EAI로 바뀌고 미국 소재의 Lynne Rienner Publishers가 새로이 출판사로 선정되다. 출판은 년2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김병국(고려대)·Yun-han Chu (Academia Sinica)·Xiabo Lu (Columbia University)·Stephan Haggard (UCSD)·Andrew MacInty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5인을 공동주간으로 위촉하다. 한편 국제 편집위원회는 24인에서 34인으로 확대된다.
- 2003년 1월** Lynne Rienner Publishers에서 JEAS 제3권 1호를 출판하다
- 2005년 1월** 5인의 공동주간 가운데 Stephan Haggard 교수가 주간으로 취임하고 나머지 4인은 부주간으로 옮겨가다. Yoshihide Soeya 교수(Keio University)가 새로이 부주간으로 총원되고 Yves Tiberghien 교수(Harvard University)가 공동서평주간으로 위촉되다.

주간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부주간

Yun-han Chu
Academia Sinica

Andrew MacInty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공동서평주간

Andrew Eungi Kim
Korea University

운영주간

Ha-jeong Kim
EAI

국제편집위원회

Muthiah Alagappa
East-West Center

Gordon de Brouw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teve Chan
University of Colorado

Beng Huat Chu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arry Diamond
Hoover Institution

Emmanuel de Dio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Jorge I. Domínguez
Harvard University

Peter Evan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ung-Joo Han
Korea University

Szu-yin Ho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Paul D. Hutchcrof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akashi Inoguchi
University of Tokyo

Byung-Kook Kim
Korea University

Yoshihide Soeya
Keio University

Yves Tiberghie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Qingguo Jia
Peking University

K. S. Jomo
University of Malaysia

Ryosei Kokubun
Keio University

Shin-wha Lee
Korea University

Hyun-Ch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Linda Lim
University of Michigan

Jongryn Mo
Yonsei University

Andrew J. Nathan
Columbia University

Gregory W. Noble
University of Tokyo

John S. Odel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 J. Pempe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enny Roy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Xiabo Lu
Columbia University

Gilbert Rozman
Princeton University

Miranda A. Schreurs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Dingli Shen
Fudan University

Jin-Young Suh
Korea University

Akihiko Tanaka
University of Tok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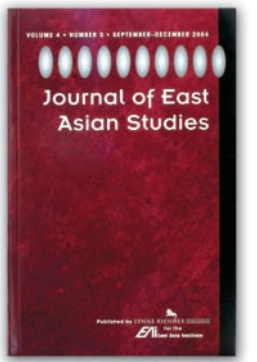
James T. H. Tang
University of Hong Kong

Ezra F. Vogel
Harvard University

Yizhou Wa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Meredith Woo-Cumings
University of Michigan

Yu-shan Wu
Academia Sinica



"This young, scholarly publication has set a new standard for innovation and excellence."
- Minxin Pei,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his important and ambitious journal brings to the fore an exciting range of articles in comparativ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seek to advance social science theory and at the same time illuminate developments in East Asia."
- Susan J. Pharr, Harvard

"...has almost immediately become a venue of choice for publication by eminent scholars from both East and West. The articles are interpretive, and they face major questions...very high quality thinking about East Asia."
- Lynn T. White III, Princeton

"This promising new journal will bring new political relevance to theoretically informed social science analysis, pouring new wine into old bottles."
- Lowell Dittm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국내여론조사

냉전의 시대가 그 막을 내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3중의 변화가 일고 있다. 가치관이 세대별로 다양화하고 여론이 정치를 움직이며 이념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사회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EAI는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치관과 여론 및 이념에 대한 분석에 객관성과 과학성을 불어넣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광범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념조사 참여교수

-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 김민진 경희대
- 김주환 연세대
- 이내영 EAI 소장 · 고려대
- 최영중 가톨릭대

신뢰조사 참여교수

- 이재열 서울대
-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 한 준 연세대

이념 조사

오늘날 한국에서는 탈냉전과 민주화 및 근대화 의 충격에 세대교체의 바람까지 가세하여 이념 적 지형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그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 핵위기에 대한 처방책 을 놓고 남남(南南) 갈등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미동맹에 대한 견해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지면서 정치적 충돌을 낳고 성장 대(對) 복지가 보혁(保革)을 구분하는 새로운 갈 등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EAI는 이렇게 안보 및 기본권과 복지의 차원에서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이념적 지형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6월부터 매년 14개의 동일한 설문문항을 조사해 오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일차적으로 한국일보를 통해 발표되며 심층적 분석은 EARS에 게재된다.

후원 한국일보

언론보도 한국일보 2002년 6월 7일~9일

3회 기획연재 [정치·사회·의식 여론조사]

한국일보 2003년 6월 9일

[정치·사회·의식 여론조사]

한국일보 2005년 1월 27일

[광복 60주년 정치·사회·의식 여론조사]

신뢰 조사

EAI는 한국을 신뢰사회로 키운다는 비전 아래 2005년 1월부터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신뢰지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국인 이 어떻게 혈연과 학연 및 지연 등 전근대적 연 고주의의 벽을 넘어 국가 사회에 대한 믿음을 쌓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있는가를 살 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를 이끄는 여 론형성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론형성층의 영향력에 대한 설문조사도 신뢰조사와 함께 실시된다. 조사대 상인 여론형성층에는 정부·군·기업에서부터 언론·노조·NGO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이 포 함된다. 신뢰조사는 매년 1회 이루어진다.

후원 한국일보

언론보도 한국일보 2005년 1월 28일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만, 여론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여론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국민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정책 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한미관계 조사

북한 핵위기로 한미공조가 더 한층 절실해지는 시점에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 화하는 사태가 한국의 ‘안’ 과 ‘밖’ 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밖’ 으로는 미국이 국방변환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안’ 으로는 한국 의 경제성장에 걸맞게 한미동맹을 동반자적 관 계로 전환시키려는 주권의식이 싹트고 있다. 게다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동맹 대(對) 주권의 문제가 일부 국민 사이에 곧바 로 전쟁 대 평화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외교정 책이 더욱 더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다. EAI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안과 밖의 충격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부터 매년 15개의 동일한 설문문항을 조사해 오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는 일차적으로 중앙일보를 통해 발표되며 심 층적 분석은 EARS에 게재된다.

후원 중앙일보

언론보도 중앙일보 2002년 12월 19일

[반미성향 누가 대통령 되든 큰 부담]

중앙일보 2003년 6월 12일

[20~30대 反美 정서 누그러져]

한국일보 2004년 2월 23일~25일 기획연재

[국민 對美 인식 보수화 뚜렷]

대통령선거 조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간 국가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표(票)’ 를 분석하면 향후 5년 의 민심이 느껴지고 갈등의 구조가 보인다. EAI는 단순히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모습을 미리 그 려보고 그 안에 내재하는 정치사회적 모순과 딜레마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책을 점검한다 는 목적으로 2002년부터 대통령선거 기간 내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 결과는 EARS에 게재된다.

후원 중앙일보

언론보도 중앙일보 2002년 8월 12일

[대선후보 가상대결]

중앙일보 2002년 8월 13일

[유권자의 지지후보 교체 가능성]

중앙일보 2002년 8월 14일

[국민성향별 대선후보 지지도]

중앙일보 2002년 8월 17일

[신문 열독율과 지지후보 변경여부]

중앙일보 2003년 1월 17일

[대선후 유권자 여론조사]

한미관계 조사 참여교수

-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김일영 성균관대
- 이내영 EAI 소장 · 고려대
- 이숙중 세종연구소

대통령선거 조사 참여교수

-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 강원택 송실대
- 김주환 연세대
- 이내영 EAI 소장 · 고려대
- 장 훈 EAI 소장 · 중앙대

국제여론조사

외교가 곧 내정이 되고, 내정이 곧 외교가 되는 지구촌 시대다. 여론조사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여론의 추이도 살펴 보면서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의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과 주제가 철저하게 국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EAI는 세계적 싱크탱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는 국제여론조사에 한국의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GIM 조사 참여교수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남궁곤 이화여대
이내영 EAI 소장·고려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최영종 가톨릭대

CSR 조사 참여교수

이재열 서울대
장진호 EAI 감사·연세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한 준 연세대

GIM 조사

GIM (Global Issue Monitor) 조사는 캐나다에 소재한 세계적 여론조사기관인 GlobeScan을 중심으로 23개국 21개 싱크탱크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50여 개에 이르는 공통 설문문항을 2회 조사하는 국제관계 여론조사이다. EAI는 2005년 1월부터 매일경제의 후원 아래 한국의 대표기관으로 GIM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중국·영국·인도네시아·멕시코의 대표기관과는 원(原)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여 6개국 비교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한다. EAI는 세계 여론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외교의 당면 과제를 살피고 국민여론에 균형 감각을 불어넣고자 한다.

후원 매일경제

언론보도 매일경제 2005년 1월 20일

[부시 2기 출범 22개국 여론조사]

매일경제 2005년 1월 26일

[세계인의 경제인식 여론조사]

매일경제 2005년 3월 22일

[유엔개혁안 23개국 여론조사]

CSR 조사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onitor) 조사는 투명한 경영·환경보호·노동자 권익에 서부터 자선 및 기부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다. CSR 조사에는 GlobeScan을 포함하여 21개국 19개 싱크탱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EAI는 한국의 대표기관으로써 GlobeScan으로부터 핵심 21개국 데이터를 넘겨받아 매일경제를 통해 발표한다. 아울러 미국·중국·영국·인도네시아·멕시코의 대표기관과는 원(原)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여 6개국 비교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한다. EA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세계여론과 대비시켜 한국사회에 알림으로써 경제의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한국사회의 반(反)기업 정서를 줄여나가고자 한다.

후원 매일경제

언론보도 매일경제 2005년 2월 22일

[사회책임경영 21개국 여론조사]

미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조사

EAI는 9·11 테러 이후 격변하고 있는 세계 여론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한국·미국·멕시코 3개국에서 공동으로 150여 개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에는 미국 부시정부의 일방주의 노선과 국제기구의 역할에서부터 군사적 동맹과 대(對)테러전에 이르는 다양한 국제적 이슈가 포함되었다. EAI는 전쟁시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키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여론조사결과를 한국사회에 발표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 아울러 빠르게 수그러들고 있는 한

국의 반미감정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반한감정을 바로잡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EAI는 참여교수 26명 가운데 10명을 초빙하여 2005년 8월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영문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할 계획이다.

후원 중앙일보

언론보도 중앙일보 2004년 9월 30일

[한국인 대외인식 조사]

중앙일보 2004년 10월 1일

[한국·미국·멕시코 국민 대외인식 비교]

참여연구진

한국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 EAI 소장·중앙대
남궁곤 이화여대
이내영 EAI 소장·고려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미국

Marshall Bouton CCFR
Cathy Hug CCFR
Jennie Taylor CCFR
Christopher Whitney CCFR

Steven Kull University of Maryland
Benjamin Page Northwestern University
Robert Shapiro Columbia University

멕시코

Susan Minushkin CIDE
Guadalupe González CIDE
Ana González CIDE
Antonio Ortiz CIDE
Mena L.N. CIDE
Laura E. Cedillo CIDE
Andrés Rozental COMEXI
Aurora Adame COMEXI
Ulises Beltrá COMEXI
Miguel Basanez COMEXI



왼쪽부터 김성한 Bouton

왼쪽부터

장진호 정한울 정원철 최영종



전문가 여론조사

국민여론은 존중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한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주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국민여론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정보 없이 형성된 만큼 그 '질' 이 부실할 수 있다. EAI는 국민여론을 조사할 때 그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강연 및 교재개발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탐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진리탐구의 방식은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EAI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국의 대학교육을 바꾸고자 한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세계적 석학의 아이디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강연회와 세미나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쌍방향의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정책사례연구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배포한다.

<p>참여교수</p> <p>대선후보 평가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김태현 EAI 소장·중앙대 김하석 서울대 남승희 명지대 박종소 서울대 유길상 노동연구원 이근 EAI 소장·서울대 조홍식 서울대 최현섭 강원대</p> <p>신(新)정부 정책과제 조사 강원택 숭실대 김민진 경희대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송치영 국민대 이내영 EAI 소장·고려대</p> <p>국정평가 강원택 숭실대 김균 고려대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김용호 인하대 박재완 성균관대 송호근 서울대 윤영철 연세대 이내영 EAI 소장·고려대 이연호 연세대 이종수 한성대 이종화 고려대 이주호 KDI 임현진 EAI 이사·서울대 전주성 이화여대 정진영 경희대 하영선 EAI 이사·서울대</p> <p>국제관계 조사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김태현 EAI 소장·중앙대 이내영 EAI 소장·고려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p>

대선후보 평가
 EAI는 대통령선거 때 국민에게 선택의 한 잣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2002년 12월 5일 [전문가 253명의 대선후보 평가]

국정평가
 대통령이 이끄는 범(凡)여권을 채찍질하고 독려하는 것은 지식인 사회의 책임이다. EAI는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실적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평가를 조사하고 있다.
출판 EARS Series 1 2004년 6월
언론보도 중앙일보 2003년 8월 21일 [노대통령 취임 6개월 여론조사]
 중앙일보 2004년 2월 19일 ~ 26일 7회 기획연재 [노대통령 1년 국정 평가]

* EAI는 전문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분야에 종사하는 1300여명의 교수 및 연구원에 대한 데이터 뱅크를 구축해 놓고 있다. 전문가 여론 조사는 EAI가 구축한 자체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新)정부 정책과제 조사
 EAI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점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가를 조사함으로써 신임 대통령의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2003년 2월 11일~13일 기획연재 [국민은 이런 정부를 바란다]

국제관계 조사
 한국은 세계로 진출하여 경제를 키우는 무역국가이자 세계열강 사이에 끼여 안보적으로 취약한 분단국가이다. EAI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목적 아래 전문가 여론조사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여론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2004년 12월 1일 [국내 정치·외교안보 전문가 대외인식]

동아시아 평화·민주·발전 강연 시리즈
 동아시아 지역학이 현대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과정의 선봉에 서 온 것이 루스 재단이다. EAI는 루스 재단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 2005년 12월부터 2년 동안 매년 5명의 EAI Fellow를 북미(北美) 정치학계의 중진 교수와 석학 중에서 선발한다. EAI Fellow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발전과 민주화'라는 주제로 대중 강연 및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서울·북경·상해·동경·대북에서 차례로 개최한다. 강연 시리즈는 네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역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만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는 이론을 생산하고 그 이론 위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학제간 연구의 학풍을 만들어낸다.
- 북미 정치학계를 이끄는 중진 교수와 석학의 방문 강연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젊은이가 첨단 사회과학 이론을 배우고 역사학적 통찰력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 정치학계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 북미 정치학계의 중진교수와 석학을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 및 연구기관과 연결시킴으로써 북미 정치학계 내의 동아시아 연구를 활성화한다.
- 한 국가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지역학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교연구를 장려한다.

후원 The Henry Luce Foundation

정책사례연구
 한국에서 정치학은 그 반세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 학생과 교수 모두가 강의실의 '주인'이 되어 대화를 통해 진리에 함께 다가가는 쌍방향의 교육이 아니라 교수는 말하고 학생은 받아쓰는 일방형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강의실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교재가 서구 정치학의 이론과 역사를 병렬적으로 간추려 놓은 백과사전 형(形)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정치학 이론을 한국사례에 적용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 그 결과 다른 나라의 역사보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더 모르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강의실에서 배운 논리나 이성과는 상관없이 정치를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 EAI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현안에 대처할 줄 아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한국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충실한 정책사례연구(Case Studies)를 대학 교재로 개발하여 쌍방향의 교육 수단으로 전국 대학에 배포하고자 한다.

- 후원** 아시아 재단
- 정책사례 연구주제**
- 94년 1차 북핵위기
 - KEDO와 2차 북핵위기
 - 한·칠레 FTA협정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p>EAI Fellow 선정위원회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Qingguo Jia Peking University Dingli Shen Fudan University Yoshihide Soeya Keio University Yun-han Chu Academia Sinica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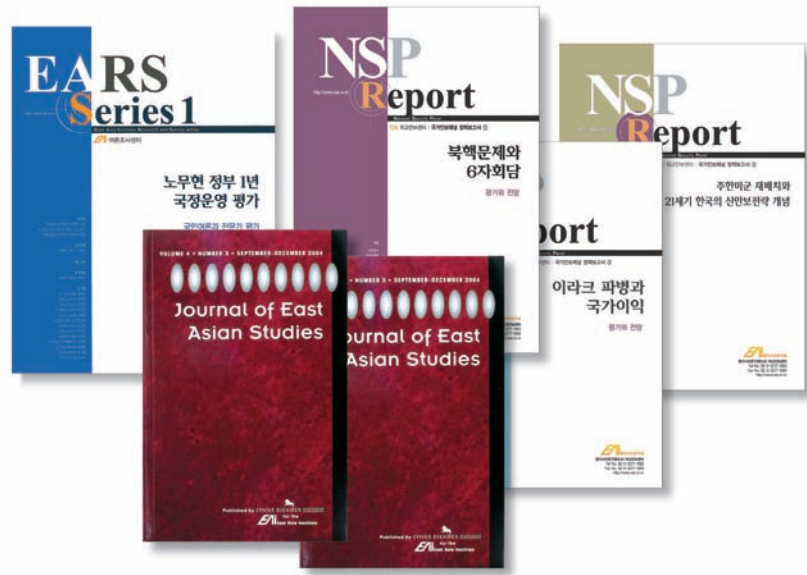
<p>정책사례연구 참여교수 김태현 EAI 소장·중앙대 전봉근 평화협력원 정진영 경희대 차두현 국방연구원</p>
--

새로운 전통의 구축

연구기획

책 안에는 한 시대의 고민이 깊숙이 배어 있고 한 세대의 지식과 지혜가 넓게 깔려 있다. EAI가 책을 출판하는 까닭은 바로 EAI가 생산해내는 아이디어를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미래 세대가 책 안에 담긴 아이디어를 자신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한차원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 EAI는 책을 통해 새로운 전통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기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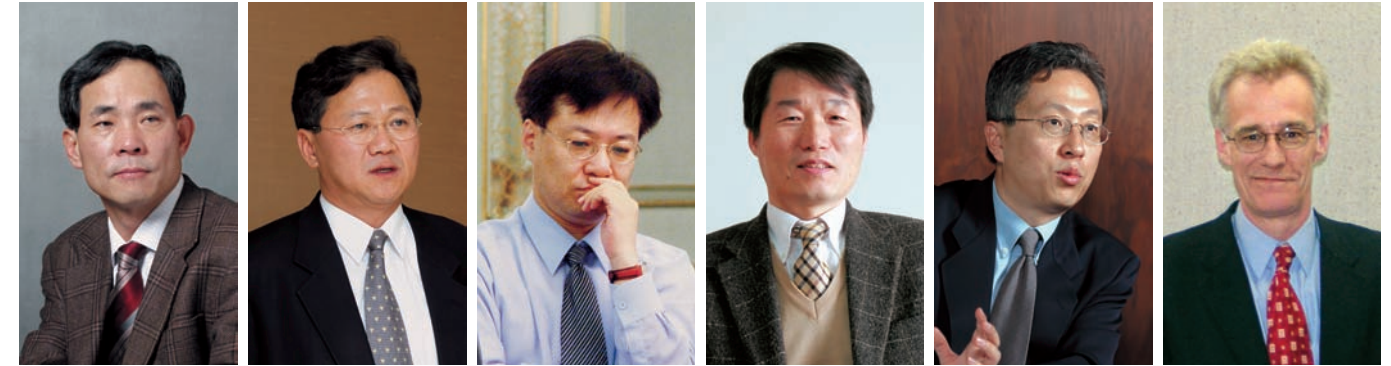
JEAS : 동아시아 연구를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역학으로 키운다는 비전 아래 매년 3회 간행되고 있는 영문저널
NSP Report : 매달 주요 외교안보현안을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리즈 형태로 발간하는 정책제안서
EARS : 전문가와 일반어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간하는 여론조사 보고서

단행본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상에서의 회고와 전망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센터소장



이내영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김태현 외교안보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장훈 거버넌스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이근 경제추격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모종린 정책개발연구센터 소장 연세대 교수
Stephan Haggard 영문저널주간 UCSD

선임연구원



왼쪽부터
정한울 선임연구원
여지희 간사
김하정 연구기획실장
백혜영 선임연구원
정원철 선임연구원

국제자문위원회

- | | | | |
|---|--|---|---|
| Shigeyuki Abe
Kyoto University |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Chung H. Lee
University of Hawaii | Robert D. Putnam
Harvard University |
| Yun-han Chu
Academia Sinica | Robert Hathaway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Xiabo Lu
Columbia University | Siew Tien Jon Quah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 Larry Diamond
Stanford University | Mike Hobday
Sussex University | Andrew MacInty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Gilbert Rozman
Princeton University |
| Jorge I. Domínguez
Harvard University | Christopher Hood
Oxford University | Akira Nakamura
Meiji University | Ezra F. Vogel
Harvard University |
| | Justin Y. Lin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Katy Kongdan Oh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Chia Siow Yue
Institute of South East Asian Studies |

이사회 및 후원회

수입과 지출

이사회

이흥구 이사장·전 국무총리	김윤호 우림 TNC 대표이사	장진호 감사·연세대 교수	하영선 서울대 교수
강찬수 서울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형국 숙명여대 교수	조상호 나남출판사 사장	한승주 고려대 교수
공유식 아주대 교수	민선식 YBM Si-Sa 사장	최동진 (주)Enoch Semiconductor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경원 전 주미대사	박찬근 (주)비엠케이리미티드 사장	최재원 SK(주)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병표 (주)주원 대표이사	서진영 고려대 교수	최진원 주식회사 SK 해운 상무이사	Tami Overby 주한 미상공회소 수석부회장
김세원 서울대 교수	임현진 서울대 교수		

후원회 (2005년 4월 기준)

세종회원	총무회원	울곡회원	퇴계회원	삼봉회원	다산회원
강찬수	김윤호	고형식	김세종	곽노전	이흥구
김병국 (金炳國)	박찬근	김상기	김용호	김건호	장진호
김병국 (金炳局)		김용수	김준	김인혜	주영아
김병표		김원	김준희	김철영	진지운
김상우		김은영	김진기	김형국	차국린
민선식		서창식	노호식	문진성	최 건
박준형		신동준	오 철	민병문	하영호
박 현		신영준	이 근	민선영	황성진
신동원		여동찬	이내영	박창기	
조상호		예병민	이영복	박천봉	
		원종숙	이재섭	손재기	
		이근우	이흥구	신권식	
		이민교	정랑호	신보희	
		이종진(李種珍)		유문종	
		장의영		이동찬	
		정봉화		이병인	
		주진균		이영복	
		최윤준		이종진(李種震)	
		최진원		이창현	
				이태석	
					구준서
					김경순
					김국형
					김남이
					김석준
					김영원
					김정수
					김정은
					김지정
					김진영
					김진혁
					김하정
					김형석
					김형재
					김형준
					김효신
					김희진
					남계승
					노재경
					라종일
					민영석
					민지숙
					박용준
					박찬선
					배위섭
					소치형
					송우엽
					신성호
					신윤경
					심윤보
					안건영
					안중익
					오미순
					원종애
					이동훈
					이여희
					이정은(李定根)
					이정은
					이정호
					이종수
					이지원
					이지희
					이충형
					이현옥
					임현모
					임홍재
					정아영
					정영국
					주미야
					주 한
					진건욱
					진선희
					최관주
					최영아
					한선호
					한일봉
					한준희
					한지현
					황석희

2002년 5월 출범한 이후 3년 동안 EAI의 총수입은 20.4억 원이었고 총지출은 8.1억 원이었다. EAI가 부담하는 회계상의 지출은 전체 사업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총사업비는 후원기관의 지출까지 포함하는 비용으로서 EAI 총지출의 1.5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AI는 상당한 수준의 수입 다변화를 달성하였다. 이사회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장기발전기금으로 10.3억 원을 기부하였고 경상비 지원금으로 2.9억 원을 모았다. 한편 이사회가 조성한 장기발전기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은 6천 7백만 원에 달하였다.

2003년 3월에 조직된 후원회도 수입 다변화의 초석을 다졌다. 매달 후원금을 내는 EAI 후원회는 출범한 지 불과 2년 동안 7명에서 131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이 기부한 후원금의 총누적액은 현재 1.1억 원에 달한다. 결국 EAI 가족을 구성하는 이사회와 후원회가 3년 동안 모금한 후원금은 14.4억 원으로서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 이외의 수입원으로는 3년 동안 2.2억 원(11%)을 후원한 국내의 학술문화재단과 2억 원(10%)을 제공한 언론사가 있다. 출범 6개월을 넘어서면서 재계의 후원도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는 국내외 정부기관의 지원도 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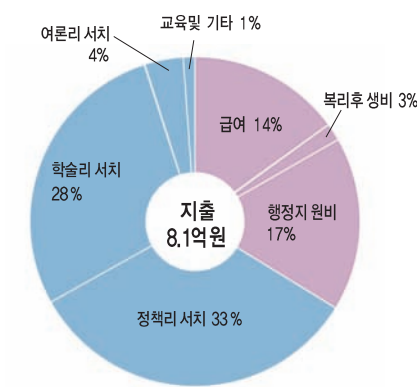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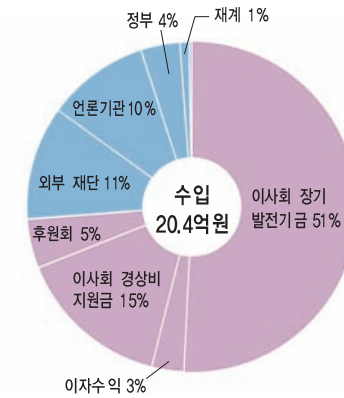
총지출은 EAI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 EAI는 스태프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아젠다가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인재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

하게 연구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이같은 학술적 유연성 덕분에 EAI는 지극히 한정된 자원으로도 정책리서치·학술리서치·여론리서치라는 3대 사업을 다같이 키울 수 있었다. EAI는 연구과제의 수를 고려할 때 경상비가 낮다. 출범

이후 3년 동안 정책리서치 부문에서만 79명의 교수가 10개의 테스크포스에 참여하였다. 학술리서치의 경우에는 99명의 학자가 7개의 연구사업에 관여하였고 여론리서치 분야에서는 25명의 연구자가 7개의 사업을 이끌었다. 이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받쳐준 스태프는 4명이었다. 출범 이후 3년 동안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1.4억 원으로서 총지출의 17%였고 임차관리비·통신비·인쇄비 등을 보탠 행정지원비는 1.39억 원(17%)이었다.

EAI는 출범한 이후 3년 동안 눈부신 재정적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AI가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려면 앞으로도 개인후원과 기관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EAI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를 항상 가슴속 깊이 담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후원자 한사람 한사람이 EAI에 대한 후원을 미래한국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의 선도적 싱크탱크로 우뚝 서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2년 6월~2004년 12월 (단위: 천원)